

협회, 'Venture Korea 2002' 개최준비 박차

협회는 10월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등에서 개최하는 'Venture Korea 2002'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행사가 국내·외 벤처인들뿐 아니라, 기술개발에 정진하고 있는 수많은 유망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 벤처정책 입안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벤처산업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벤처 비즈니스의 장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우선 산업 훈·포장을 비롯한 1백여 분야의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 상은 기술개발에 정진하는 벤처기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을 발굴·포상하여 이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벤처기업 전시회'는 수상기업과 국내 벤처산업을 이끌고 있는 리딩 벤처기업, 국내·외 창투자, 외국의 주요 투자처, 그리고 각종 벤처 관련 지원기관들이 참가한다.

행사 첫날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향후 벤처산업 육성정책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대한 토의의 장이 될 것이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 원장이 <한국 역사 속에서의 벤처정신과 미래의 주역인 벤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DASAR Group(다사르그룹)의 Alex Vieux(알렉스 뷰) 대표가 <한국 벤처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여 벤처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술분야는 <현지기업 M&A를 통한 중국진출 전략>, <한국 IT기반의 Fusion Technology의 향후 계획 및 전망> 등 벤처산업 핫이슈들에 대한 벤처포럼과 벤

처문화 심포지움으로 꾸며진다.

또한, 국내·외 유명 벤처캐피탈회사와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키로 예정되어 있는 'IR컨퍼런스'도 개최한다.

한편, 제3회 INKE 총회에는 기존 해외 10개 지부를 비롯한 주요지역에서 150여 명의 회원들과 국내 회원들이 참석하여 한민족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하고,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참석자들과의 교류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모든 벤처인들이 참가하는 생산적 축제의 마당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표 벤처 길거리 족구대회', '벤처 마라톤대회'를 국내 벤처산업의 상징인 테헤란로 인근에서 개최하며, 이밖에 '벤처기업 자선음악회'와 각종 공연 및 게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Venture Korea 2002'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해온 '벤처기업전국대회'와 협회가 운영해온 'INKE(한민족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를 통합한 것이다.

협회는 벤처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내부문과 해외부문간 시너지 창출을 지향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약 3만여 명의 벤처기업인 및 일반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행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Venture Korea 2002' 사무국(www.venturekorea.org)으로 문의하기 바라며,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문의 : 국제사업팀 박준모 팀장(02-562-5914)

